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사울

(대상 9:35-38, 참조, 대상 8:29-32)

이창엽(안양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역대상 2장 1절에 거명된 이스라엘(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과 12 지파에 대한 소개는 역대상 2장에서 유다지파부터 시작한다.¹⁾ 이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대상 9장이 아닌 8장에 이르기까지 12지파의 각 명단이 이어진다.²⁾ 이는 ‘온 이스라엘’의 통일체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관심과 일치한다.³⁾ 우리는 그의 이러한 관심을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
- 1) Steven J. L. Croft, "Review of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the Chronicles*, C.U.P., Cambridge, 1977",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4 (1979), 71-72를 참조하라.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은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을 지시한다.
 - 2) 일반적으로 역대상 1-9장까지를 족보라는 이름으로 묶는 경향이 있는데, 역대기 2장에서 시작된 온 이스라엘의 명단은 9장이 아닌 8장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 3) 역대상 9장 1절, 11장 1, 4, 10절 등 역대기에 43구절에 46번 등장하는 어구이다. 역대기 저자의 ‘온’ 이스라엘

확인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소개되는 12지파 명단 가운데 단과 스블론 자손들은 소개되지 않기도 한다. 반면에 이름이 거명된 지파별 족보 명단에서 유다(대상 2:3-4:23, 9:4-6), 레위(대상 6:1-81, 9:10-34), 베냐민(대상 7:6-12, 8:1-40, 9:7-9, 35-38, 39-44) 지파는 각각 자세하게 길게 소개되고 있다.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으로 8장에 언급되면서 역대상 2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지파별 소개가 8장에서 끝을 맺게 된다.

지파별 소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자세히 소개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이상화하여 다윗왕조, 성전 건설이라는 주제가 역대기 안에서 주요한 신학적 강조점들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⁴⁾ 일반적으로 역대상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로는 다윗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다윗 왕조와 성전(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⁵⁾ 그러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된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역대기 저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인데, 역대기 안에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역대상 내지는 역대기 전체에서

의 통일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필립 세터트웨이트/고든 맥콘빌, 「역사서」(김덕중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450-455을 참조하라. 원제는 Satterthwaite, Philip and Gordon McConville, *Exploring the Old Testament: The Histories* (London: SPCK, 2007). 또한 김윤미,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구약논단」, 22집 (2006년 12월), 81-82을 참조하라.

- 4) 이유키미는 역대상 6장의 도시 목록 연구를 통해 레위인들의 사회적 행정적 기능을 강화시켜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페르시아 시대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유키미, 「역대상 6장(MT. 5:27-6:66)의 레위 족보와 도시 목록의 의미」, 「서양고대사 연구」 33집 (2012년 12월), 139-164. 배희숙은 다윗-솔로몬, 히스기야-요시아의 개혁에서 레위인들의 신분상승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개혁조치들을 자세히 소개하여 역대기가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배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21집 (2006년 8월), 69-85.
- 5) 여호와께서 거할 집을 지을 사람은 다윗은 아니지만(대상17:4). 다윗은 성전건축을 준비하고(대상 22:2-29:9),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찬송을 맡은 자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 공간을 맡은 사람들이 역대상 23장 2-26장 28절에 걸쳐 소개된다.

베냐민 지파 소개와 연관해서 역대기 저자가 드러내고 하는 메시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은 다음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명단 중 베냐민 지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사울의 족보를 두 번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답하려고 한다. 우리는 역대기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목록 가운데 특히 역대상 8장 28-32절의 본문의 내용을 역대상 9장 35-38절에서 재사용함으로써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역대상 9장 35-38절이 역대기 안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역대기를 읽을 때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역대상 8장 29-32절과 9장 35-38절의 차이점

역대상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다섯 구절들(대상 7:6-12, 8:1-40, 9:7-9, 35-38, 39-44)에 걸쳐 소개된다. 12지파를 소개하는 2-8장에서 역대기 저자는 베냐민 지파를 두 번이나 포함시키고 있다. 첫 번째 베냐민 지파의 목록은 북쪽 지역에 위치한 지파인 잇사갈(7:1-5), 단(?) (7:12),⁶⁾ 므낫세(7:14-19), 에브라임(7:20-29), 아셀(7:30-40) 지파 가운데 등장한다(대상 7:6-12).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두 번째 본문인 역대상 8장 1-40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지파로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는 역대기의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두 번째 본문의 중

-
- 6) 숨빔과 흠빔은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을 소개하는 민수기 26장 39절을 의거하면 수빔과 후빔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역대상 7장 12절이 단지파의 목록이라고 전제하고 읽게 될 경우는 일(丹)을 우선 단(Dan)으로 바꾸어야 하고, 이어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 첫째로, 창세기 46장 23절을 따라 읽으면 단의 아들이 후빔이 되거나, 민수기 26장 42절을 따라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후빔은 수빔으로 읽게 된다. BHS 본문은 단락상 들여쓰기를 통해 역대상 7장 12절 한 구절은 단지파로, 이어 병행하여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족보로 읽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다른 지파들의 족보와 비교하여, 단 지파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7) 클라인(Ralph W. Klein)은 베냐민 지파의 여러 족보들은 다른 지파의 족보와 비슷하게 그 형태에 따라 직계, 방계 등의 모습을 띠고 있고, 이 족보는 생물학적인 측면을 소개하기 보다는 사회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Ralph W. Klein, *1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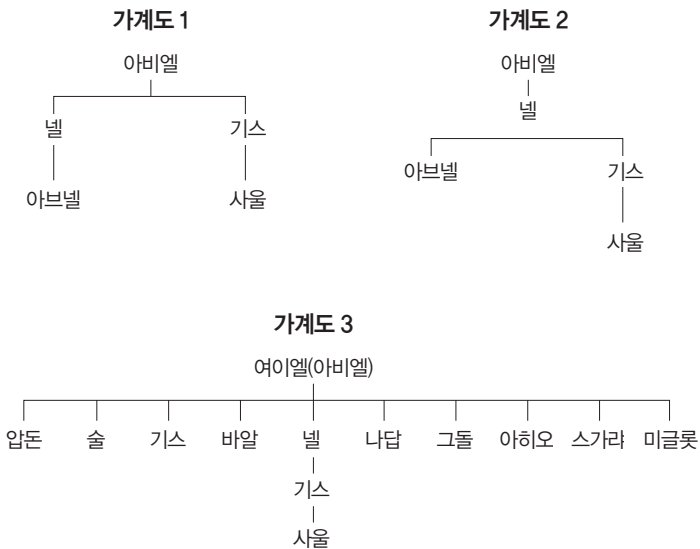
간부분인 역대상 8장 29-32절은 9장 35-38절에서 다시 소개되는데, 기브온의 조상으로 시작해서 미글롯의 아들(시므아(대상 8:32)/시므암(대상 9:38))으로 끝난다. 역대상 8장 29-32절에서 소개되는 명단은 일반적으로 역대상 8장에서는 사울의 족보와 분리되어 읽는 편이다. 몇 개의 명단이 히브리어 단어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8장 29-32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 9장 35-38절은 역대상 8장과는 달리 사울과 및 그의 죽음과 연결하면서 사울의 족보의 일부분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35-38절은 9장 39-44절과 단락 구분이 없이 읽는 경향이 있다.⁸⁾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상 8장 33절(대상 9:39)에 언급된 동일 인물)에 소개되는 넬은 8장 안에서는 그 조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독립된 내용으로 시작되는 단락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름이 넬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9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넬은 여이엘의 다섯번째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39절에서 예루살렘 거주민과 연관된 넬의 아들 기스,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이어 소개하고 있다. 사울이 베냐민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지만, 8장 29-32절의 족보는 기브온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아/시므암으로 끝나는 명단의 독립성을 우선시한 반면에, 사울의 할아버지 넬(삼상 14:50-51)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역대상 9장은 8장과는 달리 여이엘이란 이름이 역대상 9장 35절에 첨가되어 있고, 36절과 37절에 넬과 미글롯이 여이엘의 아들로 각각 첨가되어 있다.⁹⁾ 사울의 할아버지 ‘넬’이란 이름과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을 연결짓기 위해 넬이란 이름이 9장 36절 속으로 삽입되어 여이엘의 아

8) BHS도 역대상 8장 29-32절과 33-34절은 각각 달린 단락(setuma)으로 분류한 반면에, 9장 35-38절은 열린 단락(petuha)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9장 35-38절은 39-44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9) Sara Japhet, *I & II Chronic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196.

들로 소개함으로써 8장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사무엘상 9장 1절, 14장 50-51절을 바탕으로 그리면 가계도 1과 같다. 한편 야벳은 사무엘상 9장 1절, 14장 51절과 역대상 8장 33절만을 받아들이고, 사무엘상 14장 50절에서 언급된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라는 언급을 무시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면 가계도 2와 같다.¹⁰⁾ 한편 역대기 저자는 위의 두 가지 가계도와 달리 역대상 8장 29-32절과 33-40절이 서로 독립된 명단이었지만, 역대상 9장에서는 사울을 예루살렘 거민의 후손으로 소개하려고 역대상 9장 36절에 넬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역대상 9장 36절에 들어간 넬의 이름과 39절의 넬의 이름이 동일인으로 볼 경우 예루살렘 거민의 후손인 사울의 가계도는 가계도 3과 같다.



10) Japhet, 윗글 (1993), 197을 참조하라.

역대상 9장에서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 9장 36절의 '넬'과 39절의 '넬'을 동일 인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사울의 할아버지 넬은 여이엘의 다섯 번째 아들로 소개하는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역대상 9장에서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족보와 기브온의 조상의 족보가 서로 독립된 명단이었던 것을 서로 연결된 명단으로 변화시켰다.¹¹⁾ 9장 35-38절에 나오는 인물들은 원래 사울과는 연관성이 없는 독립된 내용이었지만, 이들을 사울의 직계 선조로 사울과 직접 연결하여 읽어 도 되는 것으로 역대기 저자가 변용시켰다. 9장 35-38절은 8장 29-32절과 거의 유사한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여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의 후손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대상 9장 35-38절의 족보는 예루살렘 거주민이 된 베냐민 지파와 연결된 사울의 족보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²⁾ 그러므로 8장 33절부터 40절에 이르는 사울의 족보와는 달리 9장에 나오는 사울의 족보는 9장 39절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9장 35절로부터 시작되

-
- 11) 노트(Martin Noth)는 역대상 7장 12절의 이 자리에 사울의 족보가 그 본래의 자리이어야 했다고 본다. 그는 역대상 2-9장에 있는 많은 본문이 '이차적인 본문 확장으로 인해 혼란 그 자체'라고 평가한다; 마틴 노트, 「전승사적 연구들」(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226.
- 12) 일부 학자들은 역대기 8장 29-38절이 9장 35-44절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레위 가문의'로 번역된 단어를 제외한 9장 34절 전체와 9장 35-44절이 8장으로 옮겨졌다고 본다. 그리고 8장 39-40절은 사울 가계의 계보에 계속적인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로디 브라운, 「역대상」(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243. 원제 Braun, R., *1 Chronicles* (WBC 14; Waco: Word Books, 1986).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들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는 어구는 8장 6, 10절에서 이미 역대기 저자가 사용한 표현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미 사용한 표현이기에(대상 5:24, 7:11, 40), 이 어구를 9장 34절에서 빌려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둘째로,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5장 7절과 7장 9절에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등장한다. 8장 28절과 9장 28절에 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문장인 것은 정확한 지적이지만, 이것이 9장 34절을 후기가 아닌 표제로 잘못 이해한 결과 8장 28절이 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들', '가문', '우두머리', '그들의', '족보'라는 어구들을 역대기 저자가 사용해서 8장의 베냐민 지파에 대해 정리하였고,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이었다고 베냐민 지파 소개를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8장 39-40절의 내용이 9장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8장에서 이미 소개된 계보가 있기에 생략하여 소개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부차적으로 보이는 명단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대기 저자는 9장에서 사울의 족보에 대해 재사용 및 변용이란 방법을 통해 예루살렘 주민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의 성읍인 예루살렘과 연관된 왕들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울을 예루살렘 거민의 후손으로 소개한다.

고, 벨이란 이름을 여이엘 밑에 넣어 두었고, 자연스럽게 사울의 족보를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과 연결시켜 좀 더 긴 사울의 족보로 변형시켰다. 한편 8장 39-40절의 내용은 9장에서는 생략한 채 마무리되고 있다.

역대상 2장에서 시작된 포로귀환 전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가 역대상 8장으로 끝났으면 당연히 현재로 넘어오는 것이 그 순리이다. 다시 구체적으로 10장에서 시작되는 온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과거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가 취한 방법은 이미 8장 마지막에 사용되었던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난 뒤 그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 거민이 되었다는 구절(대상 8:29-32)과 사울의 족보(대상 8:33-40)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8장에서 사용된 명단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지 않았다. 여이엘이란 이름을 역대상 9장 35절에 집어넣고, 벨을 9장 36절에 각각 첨가하였고, 42절에 나오는 아라는 여호앗다(8:36)에서, 43절의 르바야는 라바(8:37)에서 각각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8장 39-40절의 두 구절 전체를 생략하여 9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울의 족보가 역대상 8장과 9장에 두 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지만 역대기 안에서 그 기능은 철저히 다르다. 역대상 8장 33-40절은 역대상 2장에서 시작된 온 이스라엘의 지파별 명단 가운데 마지막인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는 가운데 사울의 독립된 족보가 역대상 2-8장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반면에, 특히 역대상 9장 39-44절은 10장에서 소개되는 예루살렘의 주민의 후손이었던 사울왕의 죽음 기사와 연결해서 서두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상 8장과 9장에 각각 소개된 사울의 족보는 8장에서는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의 후손중 일부가 예루살렘의 거민이 된 것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단락의 인물로 사울을 묘사한다. 예루살렘 거민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와 사울의 족보는 각각 독립적인 명단이다. 한편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베냐민 지파를 사울과 연결한다.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역대상 2-9장의 목록들이 역대기 저자의 작업

으로 받아들여든지,¹³⁾ 아니면 역대상 10장 이후의 내용들을 역대기 저자가 먼저 기록하고 난 이후 역대기 저자가 기존에 존재했던 현재의 역대상 2-9장이 역대기 앞으로 붙여지게 되었다고 각각 다른 주장을 말한다.¹⁴⁾ 한편 포로 후기와 페르시아 시대에 주요한 인구이동의 변화가 생기지 않은 특정한 경우에 기존에 존재했던 인구통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역대상 2-9장에 소개되는 여러 지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역대상 2-9장은 철기 II,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하스모니안 왕가의 2세기 통치 시대를 반영한다는 주장도 있다.¹⁵⁾ 역대상 2-9장이 늦게 덧붙여졌다는 두 번째 주장의 경우는 역대상 1-9장이 역대상 10장에서 역대하 36장에 소개된 내용과 구조적, 내용적인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역대상 1-9장의 내용과 역대상 10장에서 시작하여 역대하 36장에 이르는 역대기의 두 번째 부분의 관계에 대해 라이트(John W. Wright)는 역대기 전체 중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의 서술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 서술된 내용을 느린 템포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반복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34절의 내용은 역대기 전체의 구조에서 근본적인 부분이고, 역대상 1-9장의 족보와 10장 이후에 서술되는 사건들을 구분하는 것은 역대기 전체를 잘못을 이해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¹⁶⁾

하지만, 역대상 1-9장과 10장 이후의 장들로 나뉘는 것 보다는 역대상 1-8장(과거적 인물들인 온 이스라엘을 소개), 9장 1-34절(현재적

13)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Grand Rapids: Eerdmans, 1982), 39.

14) 마틴 노트, 윗글, 219.

15) Israel Finkelstein, "The Historical Reality behind the Genealogical Lists in 1 Chronicl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65-83.

16) John W. Wright, "The Fabula of the Book of Chronicles", M. Patrick Graham and Steven L. McKenzie(ed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54.

인물들인 온 이스라엘(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여)의 소개), 9장 35절 이후 (과거적 역사적 사건들로의 전환)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더 나은 역대기 읽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다시 과거’라는 틀 속에서 역대상 1-9장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읽기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조적 구분 가운데 8장 29-32절과 9장 35-38절의 경우 각각 과거를 담고 있지만, ‘과거’와 ‘다시 과거’로 각각 읽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본문들이 과거와 현재를 서로 이어주는 구조적 연결고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본다.

역대상 2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12 지파에 대한 소개는 8장 29-32절과 33-40절을 끝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다. 지파별 족보명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9장이 아닌 8장으로 끝난다. 바벨론 포로전 세대들인 12 지파는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고 역대상 9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역대상 2-8장의 포로전 온 이스라엘의 명단이 끝난 다음인 9장에서는 비록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그 성격에서 2-8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다. 역대상 9장 3-9절 명단은 온 이스라엘이 각 자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돌아왔고, 포로 귀환후 예루살렘 정착과 연관된 사람들의 명단이다. 포로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들, 레위인들, 회막 문지기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각각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유다로 돌아온 공동체는 2장부터 8장까지의 명단과는 달리 과거적인 인물들이 아닌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중심이 된 현재적 예루살렘 공동체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 현재적 예루살렘 예배공동체를 소개하고 난 뒤 예루살렘 거주민의 후손이었던 사울왕의 죽음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포로귀환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역대기의 전체의 구조에서 기존의 주석가들의 입장인 역대상 1-9장을 역대상 10-역대하 36장의 역사의 서문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장에서 시작된 족보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 사건 앞에서 끝나는 장인 9장 마지막절로 보기 쉽다. 족보로 시작된 역대기 1-9장은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10장 이후와 크게 단락 구분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나눌게 아니라,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한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역대기 저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온 온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전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과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시대처럼 예루살렘 주민이 중심이 되어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와 다시 과거로 넘어가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만을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예루살렘 거민의 후손으로 사울을 소개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자기의 관점에 맞게 진술해 나간다. 과거 역사로 넘어가는 디딤돌로써 역대상 9장 35-38절의 명단에 나오는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인물들과 39절에 나오는 사울의 족보를 접붙임으로써 놀랍게도 다시 과거로 넘어가고 있다. 사울왕은 역대상 9장 39절의 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9장 35절에서 소개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로부터 시작되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과 연결된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은 합법적으로 예루살렘과 연관된 왕이어야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하였던 것으로 본다.

3. 예루살렘 주민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필자를 포함해서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다윗 왕조

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어구를 성경에서 읽을 때 누가 예루살렘 주민의 구성원들이었는지 고려해 보지 않은 채 성경을 읽었다. 역대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평범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사용된 용례와 연관해서 살펴봄으로써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후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란 표현이 나올 때 역대기 본문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예루살렘의 주민은 여부스 족속이었는데 두 지파가 이들을 쫓아내려고 했다. 먼저는 유다 자손이었다. 여호수아 15장(수 15:63)에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고 언급하는 반면에 사사기 1장 8절에서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다고 소개한다. 반면에, 같은 장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밝히는데, 두 지파의 예루살렘의 점령에 대해 서로 상치된 주장을 제거하거나 조화시키지 않고 소개되고 있다.¹⁷⁾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 15장 63절과 사사기 1장 21절은 예루살렘에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살게 되었지만,¹⁸⁾ 이들이 참된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게 아니라 여부스 족속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부르고, 이와는 달리 사사기 1장 8절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기에 예루살렘의 주민이 된 것으로 본다. 사무엘하 5장 6-9절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정복할 때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사사기 1장 21

17) 야벳(Sara Japhet)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기에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본다. 역대상 8장 15-28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써 자신들의 원래 경계선을 넘어서 확장하였다고 주장한다; Japhet, *유클*, 195.

18) 데이비스(Philip R. Davies)는 여호수아 18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도시임을 지적하고 있다; Philip R. Davies, *The Origins of Biblical Israel*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7), 61.

절의 주장이 유효하다는 입장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은 이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주민은 도대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 여러 성경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¹⁹⁾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전의 상황을 묘사하는 성경본문들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다 성읍이나 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수혜자로 소개되는 본문에서는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대표적 수혜자로 거명되고 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거주하다’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에 거주하다’ 혹은 ‘예루살렘 주민’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의 용례를 살펴 본 바로는 바벨론 포로 전 왕조시기의 남 유다와 포로 후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만 구약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여부스 족속 대신 예루살렘에 결국 거주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전망을 이사야서, 스가랴서에서 읽을 수 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소개된 예루살렘 정복 및 점유에 대해 서로 상치되는 이 긴장관계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인

19)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열왕기하 23:2),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사 5:3), 이스라엘의 두 집(유다와 이스라엘)(사 8:14), 예루살렘 주민, 유다의 집 (사 22:21), 어떤 백성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것이다 (사 30:19), 유다인(유다 사람(단수로 표현됨), 예루살렘 주민 (둘의 위치가 바뀌기도 함)(렘 4:4, 11:2, 9, 17:25, 18:11, 32:32, 35:13, 35:17, 36:31),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주민(렘 11:12), 유다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렘 25:2),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됨(렘 35:11), 유다, 예루살렘 주민(렘 35:17 스바냐 1:4) 등이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특히 경고, 심판, 진노를 선포하고 책망을 듣는 맥락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이 이를 당해 야만 당사자로 나온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에스겔 11:15). 이와는 달리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주민이 있을 것)(속 2:4, 7:7, 12:5, 6, 8, 10, 14:11)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는 달리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를 경우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서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정체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역대기 안에서 ‘예루살렘’과 ‘거주하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사용된 용례를 보면 역대상 20장 1절과 역대하 34장 22절을 제외한 모든 경우 예루살렘 주민들로 사용되고 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5장 18절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예를 들어 다윗, 여선지자 홀다)이 예루살렘 살았거나 예루살렘 주민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역대상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두 단어가 서로 결합될 때는 집단을 언급한다.²⁰⁾ 역대상 8장에서 ‘예루살렘’과 ‘거주하다’라는 두 단어는 먼저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면서 사용되고 있다.²¹⁾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 후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은 유다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를 강조하고 있다(대상 9:3). 하지만 역대상 9장 4절 이하에서 이어 소개되는 부분에는 과거 북왕국 지파 가운데 두 지파인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은 역대상 9장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역대기 저자의 구체적인 명단 소개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오직 남 유다 왕국에만 해당되고,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만 언급하고 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시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역대상 9장에서 현재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해 먼저 언

20) 역대상 9장 2절에 소개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뎀 사람들(성전 봉사자들 혹은 종들(temple servants)은 그들은 땅 안에 있는 성읍이 거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1) 유다로부터 시작된 12지파의 족보는 지리적으로 볼 때 중심부에 해당하는 베냐민 지파(8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9장)을 소개함으로 끝난다; Japhet, 윗글, 189.

급하고 난 뒤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음을 이 두 단어의 사용 용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²⁾ 역대기 저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재적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구인지를 역대상 9장 3-9절에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역대상 8장 28-32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역대상 9장 34-38절은 각각 9장을 감싸고 있는 장들에 속한 구절들으로써 과거 이스라엘 역사가운데 유다왕국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야말로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참 거주민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대상 8장에 언급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시기와 연관해서는 맥콘빌(Gordon McConville)은 역대기 안에서 두 번에 걸친 베냐민 지파 소개는 이스라엘 역사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처했던 각각의 역사적 상황을 보여 준다고 보았다.²³⁾ 그는 첫 번째 명단(대상 7:6-12)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북쪽 지파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있었고, 두 번째 명단(대상 8:17-32)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전 722년에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예루살렘 안이나 이웃하는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토지 분배와 연관될 것으로 추정했다. 역대상 8장의 명단에 대해서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확정짓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포로기 이전 시대에 그들의 정착지으로써 예루살렘에 살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그들의 소유지이며 정착지이어야 함을 역대기 기자는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누구이어야 하는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지파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여호수아 18장 28절에서는 정반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답한다. 이어 사사기에

22) 윌리엄슨은 역대상 9:3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거주하였더라' 라는 어구는 역대상 8장 28절을 차용하였고, 역대상 9장 28-33절은 레위인들의 명단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기에 문맥상 역대상 9장 34절의 이 어구는 9장 전체에서 중요성을 띄지 않는다고 보았다; Williamson, 윗글, 91.

23) 세터트웨이트/맥콘빌, 윗글 (2008), 454-455.

서도 여전히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사사기 1장 8절은 유다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말하지만, 사사기 1장 21절은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언급한다. 사사기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 거주 및 소유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본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각각이 예루살렘의 거주권 및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긴장 관계는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르면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서 해결되고 있다. 두 지파 모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두 지파가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

역대상 8장 28-32절과 9장 35-38절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일부는 예루살렘 주민이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지었는지를 역대기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 주민으로 성전이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진 자들로 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다시 부흥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닌 자들이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골라 공동체(Golah community)로 함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와 옛 이스라엘 사이의 연속성의 문제와 연결된다.²⁴⁾

조운스(Gwilym H. Jones)는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중요 지파 가운데 하나였고, 이 세 지파 즉 유다, 레위, 베냐민 지파가 역대기 저자(역대사가)가 보기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웠다고 본다.²⁵⁾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유다, 레위, 베냐

24) 레이몬드 딜러드/트렘퍼 롱맨, 『최신구약개론』(박철현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257을 참조하라. 원제는 Longman III, Tremper and Raymond B.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6).

25) Gwilym H. Jones, *1 & 2 Chronicles* (Sheffield: JSOT Press, 1993), 23.

민 지파 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읽게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귀환 공동체만의 성전건축, 성벽건축, 종교개혁운동들이 배타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반면에, 역대기 안에서 족보가 보여 주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각 지파들은 온 이스라엘의 부분으로써 전체를 이루는 통일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역대상 9장 3절에서 순서상 첫 번째 거명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이다. 하지만 역대상 8장의 내용을 통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게된 지파임을 보여준다.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 갔다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이고, 어디에 살 것인가에 역대기 저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참 주민 중 중요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이었다(거주하게 되었다)는 두 단어의 사용을 통해 현재적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누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정당하게 역대기에서 소개되듯이, 베냐민 지파도 과거와의 연속성 가운데 예루살렘의 거주민이었고, 현재적으로 예루살렘의 주민인 것이 정당하고 적법함을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일러주고 있다.

4. 나가는 말

역대상 2장에서 유다지파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소개는 8장에서 베냐민 지파로 끝난다. 그 마지막이 사울의 족보이다. 이 사울의 족보와 먼저 소개된 예루살렘의 주민이었던 베냐민 사람들이 역대상 8장에서는 분리되어 소개되지만, 역대상 9장의 모든 내용이 현대의 독자가 읽을 때는 과거에 해당하지만, 역대기 저자의 시점에서 읽을 때는 현재이다. 이 현재라는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의 과거 왕정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즉 과거로 넘어가기 위해 역대기 저자는 과거와 현재를 연속선

상에 놓고, 거꾸로 가기 위해서 역대상 8장 29-3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베냐민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역대기 저자는 9장 34절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예루살렘의 현재적 상황을 마무리하고 다시 과거로 넘어가는 디딤돌로써 8장 29-32절을 단지 인용하거나 그대로 베끼지 않고 첨가와 변형이라는 방법을 취한다. 8장 29-32절과 9장 35-38절의 경우 동일 내용이지만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독립된 역대상 8장 29-32절을 변형하여 사용해서 사울의 족보와 연결되도록 만들었고 사울을 예루살렘 주민의 후손으로 바꾸었다. 이 방법을 통해 역대기 저자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구조적 연결고리 기능을 담당하는 역대상 9장 35-38절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서 9장 35-38절의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후손들을 사울왕과 연결 지을 뿐 아니라, 여이엘의 후손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 주민이 되었듯이 사울왕도 예루살렘과 연결 짓게 만든다. 역대상 9장에서 언급된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은 9장 22절의 다윗이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사람이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예배를 조직한 것이 다윗에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언급함으로써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을 예루살렘과 연결 짓는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는 했지만 기브아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과 연결될 수 없었지만, 그래서 바벨론 포로전의 족보를 나타내는 역대상 8장 33절에 소개된 사울은 예루살렘 거민과 연결될 수 없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주민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족보가 언급된 역대기 9장 38절과 사울의 족보가 언급된 39절을 연결 지어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왕도 예루살렘과 연관되도록 만들었다. 베냐민 사람들이 포로기 이전 시대부터 예루살렘 주민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도 예루살렘과 연결된다. 비록 사울은 비극적으로 길보아 산에서 그의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통해 예루살렘은 다윗의 고향일 뿐 아니라, 사울의 고향이 된다.²⁶⁾ 바벨론 포로기 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거주민이었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당연히 예루살렘 거주하게 된 것이다(대상 9:4).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에, 비록 그 명단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9장 3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까지도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로 하나 된 온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다.

5. 참고문헌

김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구약논단』 22집 (2006년 12월), 80-97.

레이몬드 달러드/트렘퍼 롱맨, 『최신구약개론』(박철현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원저 Longman III, Tremper and Raymond B. Dillard,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06).

로디 브라운, 『역대상』(김의원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원저 Braun, R., 1 Chronicles (WBC 14; Waco; Word Books, 1986).

마틴 노트, 『전승사적 연구들』(원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 2004).

배희숙, “레위인을 위한 역대기의 개혁 프로그램”, 『구약논단』 21집 (2006년 8월), 69-85.

이유미, “역대상 6장(MT. 5:27-6:66)의 레위 족보와 도시 목록의 의미”, 『서양고대사 연구』 33집 (2012년 12월), 139-164.

26) 이 주장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인 전망속에서는 첫째로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였고, 둘째로 예루살렘의 베냐민 지파와 사울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3단 논법의 결과 예루살렘과 사울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통해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의 거주할 곳으로 소개한다고 필자는 본다.

- 필립 세터트웨이트/고든 맥콘빌, 「역사서」(김덕중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원제 Satterthwaite, Philip and Gordon McConville, *Exploring the Old Testament: The Histories* (London: SPCK, 2007).
- Croft, Steven J. L., “Review of H. G. M. Williamson, *Israel in the Books of the Chronicles*, C.U.P., Cambridge, 1977”, *Journal for the Study of Old Testament* 14 (1979), 68-72.
- Davies, Philip R., *The Origins of Biblical Israel*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7).
- Finkelstein, Israel, “The Historical Reality behind the Genealogical Lists in 1 Chronicl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 (2012), 65-83.
- Japhet, Sara, *I & II Chronic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Jones, Gwinlym H., *1 & 2 Chronicles* (Sheffield: JSOT Press, 1993).
- Klein, Ralph W., *1 Chronicle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 Williamson, H. G. M., *1 and 2 Chronicles* (Grand Rapids: Eerdmans, 1982).
- Wright, John W., “The Fabula of the Book of Chronicles”, M. Patrick Graham and Steven L. McKenzie (eds.), *The Chronicler as Author: Studies in Text and Textur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136-155.

검색어

베냐민 자손

사울

여이엘

예루살렘 거주민

온 이스라엘

Saul as a Descendant of the Benjamite Residents of Jerusalem(1 Chron. 9:35-38; Cf. 1 Chron. 8:29-32)

Changyop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nswers why the Benjamite genealogical tree in 1 Chronicles 9:35-38 is used more than once. The genealogical information in 1 Chronicles 8:28-32 emphasizes that Jerusalem was inhabited by some descendants of Benjamite tribe. This genealogical information was originally independent from the family trees of Saulide pedigree in 1 Chronicles 8:33-40.

The double appearance of similar contents(8:28-32, 9:35-38) has its own motive. The first genealogy of Jeiel in 1 Chronicles 8 indicates that some descendants of Benjamite tribe were the residents of Jerusalem before the deportation by the Babylonians. With respect to the repeatedly mentioned family tree in 1 Chronicles 9:35-38, the

www.kci.go.kr

chronicler inserted Ner as a son of Jeiel, the father of Gibeon and then Saul's genealogy is smoothly connected to the descendants of Jeiel. This genealogical change supports the opinion that some Benjaminites lived in Jerusalem as one of the leading tribes after the return from the exile and that Saul was the legitimate descendent of the Benjaminite residents in Jerusalem whose main laity tribes of the golah community were Judah and Benjamin.

In doing so, he provides a fitting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e kings of all Israel whose capital is Jerusalem. In contrast to the description of 1 Samuel about Saul, the chronicler made Jerusalem as the place of the reign of king Saul.

Keywords

Descendants of the Benjaminites, Saul
Jeiel, Inhabitants of Jerusalem
All Israel

- 투고일: 2014년 4월 01일
-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06일